

政策研究資料 94-05

---

# 缺損家族의 類型別 福祉需要에 관한 研究

孔世權  
曹愛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韓國家族은 構造·機能의 변화와 더불어 價値觀도 변하고 있다. 아울러 大家族 制度下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家族問題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家族問題는 家族 自體의 문제만이 아닌 社會問題로 社會的 解決이 要求되고 있다. 또한 家族問題는 복잡다양하여 이를 유형화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가족문제만큼 福祉支援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문제 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분은 配偶者의 死亡이나 夫婦間의 離婚 및 社會的 家庭破壞 등으로 생활의 자립이 어려운 缺損家族이다. 缺損家族은 대개 家庭經濟 뿐만 아니라 子女養育 및 情緒生活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國家나 社會는 이들 家族을 위한 福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지만 社會變動과 함께 缺損家族이 增加하고 있음은 또 다른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本 研究은 全國을 對象으로 한 標本調査를 기초로 家族缺損의 類型別 福祉要求를 分析함으로써 그 豫防 및 對應策을 모색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缺損家族을 어떻게 類型化하고, 類型別 福祉要求는 어떻게 다른지를 檢討하면서 앞으로의 家庭福祉事業이 어떤 점에 關心을 두어야 하는지를 提示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缺損家族을 위한 福祉는 동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방대한 調査資料의 多角的인 分析을 통해서 보다 具體的 方案을 提示할 것으로 기대한다.

本 研究은 本研究院의 孔世權 研究委員의 責任下에 曹愛姐 責任研究員, 許美暎, 洪仁貞 臨時 主任研究員 등 많은 研究陣에 의해 遂行되었다. 또한 이 研究報告書를 완성함에 있어 研究陣들은 그 동안 많은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保健社會部 金明淑 家庭福祉審議官, 朴騎駿 家庭福祉課長 그리고 盧然弘 家庭福祉係長에게 感謝하고 있으며, 現地調査 및 관련 政策세미나를 위해서 研究費를 支援해 주신 三星生命 公益財團 李建熙 理事長님께도 謝意를 表하고 있다. 아울러 同 研究를 進行하는 과정에서 有益한 助言을 아끼지 않았던 李東媛, 金初江(이화여대), 張慶燮, 趙興植(서울대) 교수, 이은미 放送委員會 前任研究員과 현지조사에 노고

가 많았던 일선 邑·面·洞 單位에서 근무하는 家庭福祉要員 및 社會福祉專門要員  
에게도 感謝의 뜻을 表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收錄된 모든 內容은 이 研究에 참여한 研究陣의 의견으로  
研究院의 公式的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河清

# 目 次

머 리 말 .....	3
第1章 研究背景 .....	7
第1節 問題提起 .....	7
第2節 研究目的 .....	9
第2章 研究方法 .....	10
第1節 調查概要 .....	10
第2節 概念定立 .....	12
第3章 缺損樣相 .....	15
第1節 家族缺損의 原因 .....	15
第2節 構造·機能的 缺損類型 .....	17
第3節 缺損類型別 生活樣相 .....	20
第4節 缺損家族의 福祉要求 .....	23
第5節 缺損家族의 變化 .....	27
第4章 結論 및 提言 .....	31
參考文獻 .....	35
附 錄 .....	37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查票 .....	39

## 表 目 次

<表 1> 家口調査 結果 .....	12
<表 2> 缺損家口 調査結果 .....	12
<表 3> 家族의 構造, 機能 및 價値觀 側面에서 본 8가지 概念狀態 .....	13
<表 4>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文化機材 所有樣相 .....	19
<表 5> 缺損家族의 類型別 平均 家族規模 및 生活樣相 .....	21
<表 6> 缺損家族의 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文化機材 所有樣相 .....	22
<表 7> 缺損家族의 類型別 問題가 되는 生活費目 .....	25
<表 8> 最近 人口指標의 變化와 展望 .....	26
<表 9> 入養兒의 發生要因別 分布: 1958~1992 .....	28

## 圖 目 次

<圖 1> 家族缺損의 構造, 機能 및 價値觀의 複合的 關係 .....	13
<圖 2> 家族의 構造·機能的 缺損類型 .....	18

# 第1章 研究背景

## 第1節 問題提起

한국가족은 儒敎文化를 배경으로 家族中心의 生活體制<sup>1)</sup>를 이루면서 家族關係는 유난히 鞏固할 수밖에 없었다. 家族成員間의 協力으로 衣食住와 같은 生存要件을 해결하고, 扶養과 保護를 기초로 共同體의 生活을 영위하면서 서로를 위한 共生關係를 유지했다. 이처럼 가족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家族制度를 발전시키면서 生活을 構造化해 왔던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普遍性을 지닌다. 말하자면 人間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결혼을 통해 夫婦關係를 맺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서로 의존하고, 보다 나은 삶을 구축하기 위해 家族과 같은 原初的 共同體를 필요로 했다.

인간이 家族制度를 만들고, 그러한 틀에 安住하면서 이에 대한 批判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家族問題는 복잡 다양하여 이를 일정한 範疇로 劃一化하기 어렵다. 그러나 社會的 視覺은 家庭이라는 울타리내의 雜多한 점에서 보다 家族의 瓦解나 解體(구조적 측면)로 獨立된 生活이 어려운(기능적 측면) 缺損家族의 증가에 있다. 그것은 家族의 本質이 血緣的 紐帶를 기초로 獨立된 生活과, 그러한 생활로 삶의 價値를 創出하기 위한 점에 있기 때문이다.

現代家族은 급속한 産業化와 함께 構造, 機能, 그리고 價値觀 등 모든 측면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家族의 變化 중 두드러진 점은 家庭과 일터의 분리이다. 生産機能의 企業化에서 就業形態가 助長되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家族關係는 經濟的 協力이 役割의 補完關係로 변했다. 또한 經濟的 資産으로 여기던 子息은 養育의 負擔으로, 그리고 精神的 支柱였던 父母는 干涉의 對象으로 여겨지면서 家族分化 및 解體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젊은 층은 就學이나 就業으로 分居形態가 늘어나고, 夫婦들은 적은 자녀수를 원하

---

1) 여기서 家族中心 生活體制란 생산과 소비 등 모든 가족기능을 가족자체에 의해 수행함을 뜻함.

거나, 아예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성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子息이 父母를 모시기 어렵게 되고 代를 이어갈 子息을 두지 않게 됨으로써 世代間 斷絶은 물론 父系制度의 修正도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夫婦關係 역시 教育水準의 향상과 함께 役割이 多樣해짐에 따라 서로 補完關係를 이루지 못할 때 葛藤의 深化로 離婚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家族에 대한 認識이 새로와지면서 나타난 또 다른 現象은 전통적 家族制度의 有用性 弱화이다. 家族制度가 生活을 構造化하기 위한 틀이라면 이러한 制度는 일정한 形式과 秩序가 요구된다. 그러나 생각과 경험을 달리하는 家族이 한집에 살면서 役割混亂 및 價値觀 對立으로 家族의 安定性이 무너지고 있다(한남제, 1994, 徐文姬, 1993). 이러한 점은 父母가 子息에게 依存하지 않으려 하고, 子息은 父母 모시기를 忌避하며, 또 夫婦間의 정서적 緊張은 不幸한 結婚의 代案으로 離婚을 서슴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家族보다 個人을 우선하는 個人主義, 物質主義 및 便宜主義는 結婚과 性, 그리고 出産이라는 倫理的 高리를 붕괴시켰다. 따라서 人工妊娠中絶이 성행되고, 子女遺棄, 性暴行, 殺人 및 각종 事故등으로 인한 缺損家族<sup>2)</sup>이 증가되고 있다.

家族은 일정한 틀로만 유지될 수 없고, 자체에 의해서나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力動的인 변화를 거듭한다. 家族의 變化는 생활주기에 따라서 일정한 秩序를 유지하고, 그러한 秩序에 따라서 生活도 달리 한다. 그러나 社會變化와 함께 家族缺損이 증가하고, 또 正常家族도 威脅을 받고 있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個人的 理由로나, 社會的 理由로 缺損家族이 增加하고 있다면 이는看過될 수 없는 問題인 것이다. 특히 福祉制度가 미비된 상황에서 缺損家族의 증가는 이를 위한 대응에 實證的 資料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결손가족에 관한 개념정립은 제2장 연구방법에서 재론하고 있음. 여기서 결손가족의 증가는 가족전환(family transition)에 따른 자연적인 점에서 보다 사회구조의 다변화(social multiphasic changes)에 따른 가족적 요인(이혼 및 별거의 증가, 핵가족화 및 독신선호 그리고 출산조절 및 자녀유기 증가 등)이나 사회적 요인(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불구, 성폭행 및 살인 등)에 의한 구조적 결손이 생활자립이 어려운 기능적 결손으로 이어지는 점을 의미함.



## 第2節 研究目的

이 연구는 家族缺損의 原因과 그 實態를 파악함으로써 豫防 및 對應策을 모색하려는 데 目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연구는 가족의 변화에서 缺損이 어떠한 경우이고, 이들 가족은 어떻게 生活하는지를 분석하면서 豫防 및 對策을 모색하려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家族缺損은 어떻게 規定하고, 缺損要因은 무엇이며, 또 缺損類型別 福祉問題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國家나 社會는 이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 目的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目的을 한번의 限定된 調査로 충족시키는 데는 限界가 있다. 특히 전국 규모의 缺損家族生活實態調査를 이번에 최초로 試圖했다는 점은 이에 대한 관심에 앞서 보다 많은 施行錯誤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동 調査結果<sup>3)</sup>는 앞으로 深層分析을 통해 缺損家族의 福祉를 위한 새로운 契機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이제까지 家族問題는 私的인 問題로만 여기면서 缺損家族에 대한 經濟的 支援만이 最善의 福祉로 여겨왔던 점을 감안하면 缺損原因을 把握하여 이를 위한 豫防策을 모색한다는 점은 새로운 試圖가 아닐 수 없다.

3) 동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은 앞으로 계속 실시되어 연구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의 일부만을 언급함.

## 第2章 研究方法

### 第1節 調査概要

#### 1. 調査規模

이 研究은 전국을 대상으로 標本抽出된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標本地域은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를 위해서 표본추출한 167調査區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원래 標本調査區는 行政單位와 관계없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동 調査는 일선 洞·邑·面 單位의 家庭福祉要員을 調査員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와 조사의 便宜性을 고려하여 行政單位別 調整이 불가피했다. 調査區 調整은 당초의 調査區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도시의 경우는 統單位로, 농촌의 경우는 里單位로 한 것이다. 그러나 地域特性에 따라서 統 및 里單位는 家口數의 偏差가 크기 때문에 120家口를 上廻하는 統 또는 里單位는 平均 120가구 수준으로 調整한 것이다.

#### 2. 調査內容

調査內容은 調査目的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로 設計한 調査票에 의거하였다. 調査票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家族生活調査票와 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缺損家族調査票로 구분되며, 이러한 조사표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家族生活調査票의 內容은 家口員 및 家族員 事項 및 住居實態를, 그리고 缺損家族調査票는 家口員 및 家族員 事項, 住居實態외에 生計支援과 家族關係 및 缺損原因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구원 및 가족원 사항은 家口員의 數와 性別, 年齡別 特性과 家族關係, 教育水準, 結婚狀態, 活動狀態, 就業形態, 宗教 그리고 家族間 同居 및 分居에 관한 내용이다. 또 住居實態에는 住宅所有, 文化施設, 住居期間, 住居移動, 生計活動 및 生活水準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家族關係 및 缺損의 原因에서는 缺損 당사자와 그들 配偶者 또는 父母의 결혼에 관련된 사항 및 구체적인 缺損原因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별첨 조사표 참조).

### 3. 調査方法

同 調査에서 調査方法은 調査員에 의한 追究面接調査의 형태를 취했다. 調査員은 일선 洞·邑·面 單位에 근무하는 家庭福祉要員 또는 社會福祉 專門要員으로 하였고, 調査指導員은 전국 市·道 單位에 근무하는 行政 公務員 중 1명씩을 選定하여 調査指導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조사원 및 지도원에게는 조사전에 1일간에 걸쳐 조사에 필요한 調査員 敎育을 실시하여 調査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 保健社會部,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및 市·道 指導員은 조사 진행 중에 각각의 調査區를 出張하여 調査指導 業務를 담당하였다.

### 4. 調査結果

本 調査는 전국 167개 조사구의 약 20,000家口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調査完了된 家口는 총 17,275家口로 조사 完了率은 86.2%에 이른다(表 1 참조). 또한 調査完了된 가구 중 缺損家口는 1,449家口로써 調査完了家口의 8.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調査가 完了된 缺損家口는 889家口로서 가구조사에서 확인된 缺損家口의 61.4% 수준이었다(表 2 참조). 여기서 缺損家口는 偏父 또는 偏母가 未婚子女와 사는 경우, 祖父母 또는 偏祖父母가 만 19세 이하의 親孫子女 및 外孫子女와 同居하는 경우, 기타 親族이 다른 親族의 자녀(만 19세 이하)와 동거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한 것이며, 構造的인 側面의 缺損만을 고려하여 調査對象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調査率이 낮은 것은 대개 缺損家族이 그렇듯이 생계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터로 가고, 또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관계로 面接이 不可能하거나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하여 조사에 대한 應答을 拒否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lt;表 1&gt; 家口調査 結果

(단위: 가구)

지역	가 구 조 사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전 국	20,040	17,275	2,765	86.2
시 부	14,400	12,227	2,173	84.9
군 부	5,640	5,048	592	89.5

&lt;表 2&gt; 缺損家口 調査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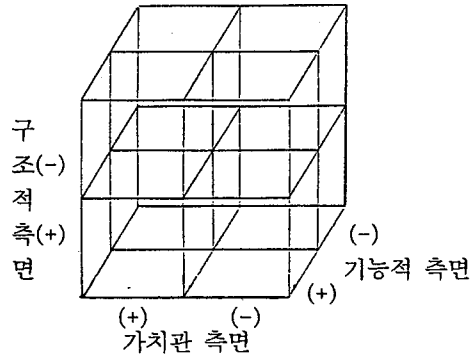
(단위: 가구)

지역	결손가구 조사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전 국	1,449	889	560	61.4
시 부	1,001	614	387	61.3
군 부	448	275	173	61.4

## 第2節 概念定立

원래 缺損이란 결합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抽象語이다. 그렇다면 家族缺損은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모든 個體는 나름대로 特殊性을 지니며, 健康한 狀態를 正常的 條件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人間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健康을 正常狀態로, 그렇지 못한 狀態는 疾病으로 간주함이 病理論(Wolinsky, 1988)이다. 世界保健機構(WHO)에서는 “健康은 단순히 疾病이나 虛弱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肉體的, 精神的, 그리고 社會的 安寧狀態”를 뜻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疾病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正常이 아니고, 또 期待되는 役割과 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한다.

이러한 점은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家族이 結婚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成員間의 協力으로 獨立된 生活과, 그러한 生活로 삶의 價値를 누리려는 점을 基本要件으로 한다면 結婚의 解體는 構造的 缺損으로, 獨立된 生活의



<圖 1> 家族缺損의 構造, 機能 및 價値觀의 複合的 關係

註: 여기서 構造的 側面의 +는 夫婦同居, -는 夫婦解婚을, 機能的 側面의 +는 生活獨立, -는 生活依存을, 그리고 價値觀 側面의 +는 家族協力, -는 家族葛藤을 의미함.

<表 3> 家族의 構造, 機能 및 價値觀 側面에서 본 8가지 概念狀態

안정성	가족형태	구조적	기능적	가치관
1	정상가족	+	+	+
2	갈등가족	+	+	-
3	영세가족	+	-	+
4	영세갈등	+	-	-
5	편부모정상가족	-	+	+
6	편부모갈등가족	-	+	-
7	편부모영세가족	-	-	+
8	완전결손가족	-	-	-

註: 여기서 1은 典型的 正常家族을, 2는 家庭不和가 지속되는 葛藤家族을, 3은 生活의 獨立이 어려운 零細家族을, 4는 生活의 獨立이 어렵고, 家庭不和가 지속되는 零細 葛藤家族을, 5는 偏父母狀態의 正常家族을, 6은 獨立된 生活을 하는 偏父母 葛藤家族을, 7은 家族關係가 원만한 偏父母 零細家族을, 그리고 8은 構造, 機能 및 價値觀面에서 完全缺損 家族을 의미함.

어려움은 機能的 缺損으로, 그리고 成員間 葛藤의 지속은 價値觀의 缺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現代家族의 特徵은 <圖 1> 및 <表 3>과 같이 構造, 機能 및 價値觀 側面에서 缺損狀態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分類는 理念的 類型에 불과하지만 問題의 屬性을 類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家族의 本質上 構造, 機能 그리고 價値觀 側面에서 모든 要

件을 充足하고 있는 경우를 正常家族으로 본다면 어느 한 가지 要件만이 缺損된 경우는 部分缺損으로 問題가 크지 않지만 세 가지 이상 缺損된 경우는 完全缺損으로 家族問題는 심각한 狀態일 수 있다. 따라서 家族缺損을 어떻게 類型化하고, 또 그러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 第3章 缺損樣相

### 第1節 家族缺損의 原因

家族은 獨立된 生活單位로 자체에 의해서, 또는 環境的 要件과의 關係로 轉移的 變化(transformation)를 계속한다. 따라서 힐(R.Hill, 1981)은 家族研究의 領域을 1) 제도적 측면, 2) 구조기능적 측면, 3) 상호작용의 측면, 4) 상황적 측면, 그리고 5) 가족발달의 측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社會的 構造物로서의 가족과, 生物學的 單位로서의 가족은 多角的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은 家族의 缺損原因을 論議하는 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家族缺損은 가족문제의 結果的 產物로, 그 原因糾明은 간단할 수 없다. 다만 推論的 觀點은 전통가족이 家族中心의 生活을 營爲하면서 문제의 예방 및 해결 역시 가족 자체에 의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家族의 死亡과 같은 構造的 缺損은 宿命的인 것으로, 生活依存과 같은 機能的 缺損은 親族關係에 의해서, 또 家族葛藤과 같은 價値觀 缺損은 家族規範에 의해서 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現代家族은 일대 變革이 일어나고 있다. 保健醫療의 發展은 平均壽命을 延長시켰고, 生産機能의 企業化는 就業形態를 助長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婚期의 遲延과 함께 出產調節이 유도되었고, 結婚과 離婚의 自律化와 각종 産業事故, 交通事故 또는 家庭破壞는 家族의 構造的 缺損(사망, 유기 및 일탈 등)은 물론 價値觀 缺損(즉 關係와해, 역할혼란 및 부양기피 등) 및 機能的 缺損(생활의 존)을 유발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家族缺損은 特定 原因이 特定 結果로 이어진다는 單純機轉에 의한 것이 아니라 複合的 原因에 의해서 複合的인 結果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 缺損狀態 역시 複合關係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家族의 構造的 缺損은 어떤 要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물론 가족은 構造, 機能, 및 價値觀 등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家族規模의 縮小化가 분화, 이혼, 사망, 그리고 출산조절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相對的으로 구조적 결손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즉 家族

分化는 부모자식간 또는 부부간의 分居形態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분거형태가 고착될 경우 家族은 孤立化된다. 이러한 점은 離婚 및 死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出産調節은 당사자들의 扶養負擔 輕減이나 役割擴大 외에 자녀를 두지 않거나, 또는 딸만 두는 경우 장남에 의해 가계가 계승되는 既存 家族制度가 유지되는 한 당사자들의 老後는 構造的 缺損要因으로 연계된다(孔世權 外, 1993).

다음은 機能的 側面으로, 이는 가족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生産과 消費, 出産과 養育, 그리고 家族間 扶養關係(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관계)를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역할범주는 成員間의 協力으로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가족기능은 가족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家族의 生産機能만을 위주로 생각할 때 構造的 缺損이 아닌 경우라도 就業이 어려운 경우나, 家口主 또는 家族員의 障擧로 生計活動이 不可能한 경우, 일정한 生産 및 收入만으로 生計가 어려운 경우, 또는 生計活動을 忌避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외 구조적 결손이 기능적 결손으로 이어진 偏父母家族 및 解體家族 등의 生計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가족의 自體的 要件과 社會的 要件과의 複合的인 關係로 나타난다.

셋째는 價値觀 側面이다. 家族價値는 관계의식, 역할의식, 책임의식 등 家族의 共同體 意識을 말한다. 그러나 機能의 專門化, 役割의 多樣化 및 構造的 單純化에서 關係意識, 役割意識, 그리고 責任意識도 個別化 될 수 밖에 없다. 즉 共同體 意識은 弱化되면서 個人主義的 價値觀이 팽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의 利益과 便宜性 및 自律性외에 家族의 有用性을 弱化시키면서 구조기능적 결손을 조장한다. 예를 들면 離婚의 自律化, 分居의 普遍化, 그리고 扶養의 忌避化 등이 家族生活의 瓦解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버제스 및 록크(Burgess & Locke, 1963)의 지적과 같이 사회변동과 함께 가족은 구조기능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適切히 대처하지 못하는 價値觀의 混亂이 解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가치관의 不調和 現象을 家族缺損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인식은 家族缺損이 어떤 경우이고, 어떤 要因에 의해서 나타나며,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具體的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缺損家族은 母子家族, 父子家族, 또는 少年/少女家族으로만 指稱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類型的 家族은 어떤 原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産業化와 함께 生活의 豊饒와 便宜性만을 追求하는 가운데서 그 裏面에는 葛藤과 混沌 그리고 缺損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家族은 그 缺損을 宿命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政府는 이들 家族을 위해 일부 生計費만을 補助하는 수준에서 福祉策을 講究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缺損家族은 尙存했다. 그러나 産業化와 함께 이러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면 예사로운 일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家族缺損은 家族問題의 終局的 現象으로 福祉施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만 關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家族도 이러한 危險에서 例外일 수 없다는 점에서 原因糾明을 통한 豫防策과 實狀把握을 통한 對應策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第2節 構造·機能的 缺損類型

本 研究에서 家族의 缺損實態는 構造·機能的 側面에서 일부 變數만을 기초로 접근했다. 여기서 構造的 側面은 부부간 解婚與否에 관한 것이고, 機能的 側面은 生活의 獨立與否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缺損家族은 명확한 概念定義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偏父家族이나 偏母家族, 그리고 부모가 없는 無依託 青少年 家族(세칭 소년/소녀가장 가족)으로 지칭하고, 또 解婚狀態가 아니더라도 生活이 어려운 家族은 零細家族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家族이 結婚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獨立된 生活을 基本要件으로 한다면 結婚의 解婚與否와 生活의 獨立與否는 主要變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家族構造는 그 規模와 構成員의 特性, 生活週期 등 다양성을 내포하며, 家族機能은 生産과 消費, 出産과 養育, 扶養과 保護 등 複合關係로 설명된다. 따라서 家族缺損을 結婚의 解婚與否와 生活의 獨立與否만을 기초로 구분하는 것은 制限性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缺損家族의 特定變數만으로 유형화한 本 研究는 試論的 接近에 불과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概念을 기초로 한 構造機能的 缺損樣相은 <圖 2>와 같이 區分된다.

먼저 構造的 缺損은 전체가구의 8.4%를 점유하고, 機能的 缺損은 12.7%를 차

지한다. 다시 말해서 全國的으로 일정한 家族類型(즉 부부관계)을 이루면서 獨立된 生活을 영위하는 소위 正常家口는 전체 가구 중 4/5에 달하고 1/5은 構造·機能的 缺損家族이라는 뜻이다.

		구조적 측면		
		부부동거(+) 부부별거(-)		
기능적 측면	생활자립(+)	+,+(a) 81.3	+,-(b) 6.0	87.3
	생활의존(-)	-,+(c) 10.3	-,-(d) 2.4	12.7
		91.6	8.4	100.0

<圖 2> 家族의 構造·機能的 缺損類型

註: 동 자료는 현재 종합분석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잠정수치에 의한 것이며, 구조적 측면에서의 부부동거에는 1인가구(분거자녀, 노인독신 등)를 포함하였음. 여기서 생활자립은 조사상 가구주 및 가족이 벌어서 생활하는 경우이고, 생활의존은 친족, 이웃, 사회 및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뜻함.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자료』, 1994.

그러나 이러한 缺損家族중 약 1/3은 解婚狀態이지만 生活自立이 可能하며, 1/2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생활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이다. 또 전체 가구 중 2.4%는 解婚狀態이며 생활자립도 어려운 要保護家口이다.

이들 缺損家族의 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文化機材 所有樣相은 <表 4>와 같다(결혼유형별 생활양상은 다음 절에서 별도로 언급할 것임). 일반적으로 夫婦가 同居하면서 생활자립을 하는 가구 중 貯蓄家口는 약 65%에 이르고, 負債를 안고 있는 가구는 30%이다. 그러나 解婚狀態에서 생활자립을 하는 가구 중 저축가구는 약 47%이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으나 생활을 의존하는 가구 중 저축가구는 22%,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24%이며, 解婚狀態에서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 중 貯蓄家口가 19%이고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35%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家族特性 및 生計活動 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構造·機能的 缺損家口는 經濟的 問題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음은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에 관한 사항으로 缺損 類型別 가구원이 평가하는

生活水準 및 生活滿足은 正常家口에 비해서 매우 낮다. 解婚狀態에서 생활 모두를 의존하고 있는 가구는 자신들이 못산다는 경우가 73%에 이르며, 生活의 自立狀態에서도 자신들이 못산다는 경우가 45%로 부부가 동거하면서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경우보다 낮다.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 역시 構造的 缺損家口(解婚家口)의 不滿足度가 높다.

<表 4>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文化機材 所有樣相

(단위: %)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	생활자립		생활의존		
	부부동거(a)	부부이별(b)	부부동거(c)	부부이별(d)	
저축/부채	저축함	65.1	47.3	22.1	19.0
	부채있음	30.0	32.7	23.6	35.1
생활수준	잘사는 편	11.0	4.2	6.3	1.2
	보통	66.9	51.2	51.3	26.0
	못사는 편	22.2	44.6	42.4	72.8
생활만족	만족함	43.1	23.2	26.6	12.0
	보통	43.1	47.0	47.6	40.9
	불만족	13.8	29.7	25.8	47.1
생활전망	좋아질 것	76.6	62.4	41.5	48.3
	그저 그렇다	20.3	32.3	48.8	40.7
	나빠질 것	3.1	5.3	11.7	11.0
생활문제	없음	28.6	11.1	16.4	5.4
	가정경제	31.4	34.2	35.0	43.0
	자녀양육	24.0	35.4	12.3	28.7
	건강 및 부양	11.7	13.2	30.3	18.7
	기타	4.3	6.1	6.0	4.2
문화기재 <sup>1)</sup>	전화	98.6	97.7	92.5	95.3
	TV	99.3	99.2	96.5	97.6
	냉장고	98.8	98.4	94.3	96.8
	세탁기	89.5	81.6	59.9	67.0
	자동차	38.6	13.8	12.4	4.7
(가구수)	(13,971)	(1,035)	(1,768)	(409)	

註: 1) 문화기재는 소유율만을 표시한 것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자료』, 1994.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解婚狀態에서 생활을 의존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경우가 12%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同 資料가 斷面調査(cross-sectional survey)로서 조사당시의 상황만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낙관적 생활태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지만 결손가족도 그들 생활은 생활주기에 따라서 가변성을 지니기 때문에 생활기대도 달리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缺損家口의 앞으로 生活에 대한 期待는 正常家口에 비해 낮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약 1/2이 희망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正常家口 중 3/4은 앞으로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인데 비해 解婚狀態의 생활자립가구는 62%가, 解婚狀態의 생활의존가구는 48%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解婚家口 중 생활문제는 家庭經濟 및 子女養育에서 주종을 이루고, 특히 解婚狀態의 생활의존가구는 전체가구 문제중 家庭經濟가 43%, 자녀양육이 29%인데 비해 解婚狀態의 生活自立 家口는 子女養育이 35%, 家庭經濟가 34%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의 문화생활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 第3節 缺損類型別 生活樣相

어떤 家族이 正常이고, 어떤 家族이 缺損인지에 대한 區分이 어렵지만 本 研究가 構造·機能的 側面에서 분류한 결손가족의 생활은 정상가족보다 貧困과 葛藤, 疎外 등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本 節에서는 缺損家族을 構造的 側面에서 偏父家族, 偏母家族 그리고 기타 缺損家族(주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족)으로 분류하여 이들 가족의 생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 결손가족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조사완료된 전체 결손대상(890명)중 편부가족은 21%에 해당하며, 편모가족은 72%, 기타 결손가족은 7%로 편모가족이 전체 결손가족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家族規模를 보면 조사당시의 同居家族數는 평균 3.1명 이었으며, 분거가족을 포함한 全體 家族數는 3.3명 수준이었다. 결손가족의 유형별로는 기타 결손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순으로 동거 가족원 및 전체 가족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수는 전국적인 평균가족수(동거가족원: 3.5명, 전체 가족원: 3.9명)와 비교할 때는 적은 수이다(表 5 참조).

<表 5> 缺損家族의 類型別 平均 家族規模 및 生活樣相

(단위: 명, %)

가족규모 및 생활양상	편부가족	편모가족	기타결손 <sup>1)</sup>	전 체
평균가족규모				
동거가족	3.25	2.95	3.39	3.05
전체가족 <sup>2)</sup>	3.45	3.21	3.83	3.31
생활양상				
가족수입	89.3	92.0	62.9	89.4
가족지원	14.4	17.2	43.5	18.4
정부지원	25.7	28.4	51.6	29.4
민간지원	1.6	2.2	11.3	2.7
기 타	1.6	5.8	1.6	4.6
(응답자)	(187)	(641)	(62)	(890)

註: 1) 여기서 기타 결손은 조부모 및 편조부모가 19세 이하의 친손자녀 및 외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이고, 기타 친족이 19세 이하 친족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19세 이하 소년/소녀만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체 가족은 동거가족원 및 분거가족원을 포함한 경우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손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자료』, 1994.

다음은 결손가족의 생활양상으로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약 90%에 이른다. 그러나 결손가족 유형별로는 기타 결손가족은 가족 스스로 떨어져 생활하는율은 제일 낮은 편(62.9%)이며, 親族의 支援(43.5%)이나 政府支援(51.6%), 그리고 民間團體의 支援(11.3%)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편부모가족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편부모가족 중에서는 편모가족이 편부가족보다 다소 생활자립도가 높고 또 가족의 지원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親族의 連結網이 편부가족에 비해서 높다는 점과 연관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여기서 결손가족 중 정부의 생활지원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은 이제까지 정부가 계속해온 결손보호를 위한 生計支援事業의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를 수록 핵가족화와 함께 친족간 紐帶弱化는 결손가족의 孤立化를 加重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결손가족을 위한 생활보호는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사회단체의 구호사업보다 體系的인 政府支援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심치 않게 된다.

결손가족의 유형별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文化機材 所有樣相은 <表 6>과 같다. 우선 缺損家族의 貯蓄 및 負債現況을 보면 약 1/3 이상이 저축을 하고,

또 1/3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表 6> 缺損家族의 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文化機材 所有樣相

(단위: %)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	편부가족	편모가족	기타결손 <sup>1)</sup>	전체	
저축/부채	저축함	31.1	42.4	9.7	37.7
	부채있음	33.5	36.0	33.9	35.3
생활수준	잘사는 편	1.1	2.2	1.6	1.9
	보통	41.1	36.8	17.7	36.3
	못사는 편	58.8	61.0	80.6	61.7
생활만족	만족하는 편	10.8	16.8	6.5	14.8
	그저 그렇다	47.3	44.7	33.9	44.5
	불만족인 편	41.9	38.6	59.7	40.7
생활전망	좋아질 것	43.5	59.7	25.8	54.0
	그저 그렇다	45.2	34.0	51.6	37.6
	나빠질 것	11.3	6.3	22.6	8.5
생활문제	없음	8.1	7.2	1.6	7.0
	가정경제	32.8	41.0	39.3	39.1
	자녀양육	29.0	36.9	26.2	34.5
	건강부양	14.0	11.5	26.2	13.0
	기타	16.1	3.5	6.6	6.3
문화기재 <sup>2)</sup>	전화	93.6	97.6	95.2	96.6
	TV	98.4	98.9	100.0	98.9
	냉장고	97.3	98.1	95.2	97.7
	세탁기	73.8	79.3	54.1	76.4
	자동차	15.6	6.7	10.0	8.8
(응답자)	(187)	(641)	(62)	(890)	

註: 1) 여기서 기타 결손은 조부모 및 편조부모가 19세 미만의 친손자녀 및 외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이고, 기타 친족이 19세 미만 친족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19세 이하 소년/소녀만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2) 문화기재는 소유율만을 표시한 것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손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자료』, 1994.

여기서 결손가족 중 편모가족은 저축율(42.4%)이 제일 높은 반면 기타 결손가족은 가장 낮은 편이다(10%). 그러나 편모가족의 경우 부채율(36%)도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저축과 부채의 경우 결손가족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많음을 단순지표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손가족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생활수준은 못산다는 경우가 62%에 이른다. 특히 기타 결손(주로 少年/少女家族)은 더 높은 率(81%)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은 父母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못산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부(59%)나 편모(61%)가족 역시 약 60%가 못산다고 응답하고 있어 相對的 貧困感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正常家族(表 4 참조)의 못산다는 경우(22%)와는 대조적이다. 결손가족의 유형별 생활만족은 15%가 만족한다는 경우이다. 반대로 생활에서의 불만은 결손가족 중 기타 결손가족이 60%로 가장 높고, 다음은 편부가족에서 42%를 차지하며, 편모가족은 39%로 비슷하다.

결손가족의 生活展望은 과반수(54%)가 希望的인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편모가족은 앞으로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60%에 달하며, 편부가족은 44%, 그리고 기타 결손가족은 26%이다. 생활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기타 결손가족이나 편부가족은 생활의 불만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에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암시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缺損家族의 生活問題는 주로 家庭經濟(39%) 및 子女養育(35%)에서 지적되고 있다. 偏母家族은 가정경제가 41%, 자녀양육이 37%로 가장 높은 반면, 偏父家族은 가정경제(33%), 자녀양육(29%), 기타문제(16%), 건강 및 부양문제(14%)의 순이다. 또 기타 결손가족은 가정경제(39%), 자녀양육(26%), 건강 및 부양문제(2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문제가 가족형태에 따라서 다양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文化機材 所有形態를 보면 대부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第4節 缺損家族의 福祉要求

家族福祉의 領域이나 基準은 制限的일 수 없다. 특히 결손가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주어진 與件에서 最善과 最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福祉의 概念이나 役割은 남는 것을 나누어 주던 “殘餘에서 制度로”, 개인의 뜻에 의한 “自願에서 公共으로”, “個人에서 社會로”, “最小에서 最適으로”, 그리고 “救貧에서 機能으로” 변해(Romanyshyn J. M., 1971) 왔다면, 이러한 점은 복지제도를 다양화시키면서 市場機能을 통해 자유롭게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補完福祉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福祉要求를 一次的으로 自力에 의해 充足할 수 있도록 支援機能을 사회적으로 構造化하기 위한 것이 그것일 수 있다.

缺損家族의 福祉要求는 缺損類型, 家族特性, 家族關係 및 個人特性 등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福祉制度가 미비한 家族中心 生活體制에서 福祉要求는 制限的이거나 逆機能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정부나 사회단체가 提供하는 福祉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한 서비스受惠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受惠를 忌避 또는 拒否하는 경우도 있다(金貞子 外, 1984). 이러한 점은 복지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결손가족의 복지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결손가족 유형별로 문제가 되는 生活費目을 살펴보면 첫째가 子女教育費(41%)이며, 다음은 食料品費(20%) 및 住居費(19%)에서 주종을 이룬다(表 7 참조). 자녀를 두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 현대 생활에서 결손가족은 교육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물론 주거와 식생활도 문제가 있지만 자녀교육이 이들 생활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한 것은 가정경제에서 教育費가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端的으로 표시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손가족에 대한 政府支援은 우선적으로 결손가족만이라도 義務教育은 물론 교육에 따르는 附帶費用을 정부가 지원해 줌은 생활의 負擔輕減은 물론 自活策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겠다.

缺損家族의 主要問題는 生計, 子女, 健康, 情緒, 그리고 親族에 관한 것으로 指稱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福祉的 要求는 經濟的 支援에서 期待가 가장 크다(金貞子 外, 1984, 1988).



<表 7> 缺損家族의 類型別 問題가 되는 生活費目

(단위: %)

생활비목	편부가족	편모가족	기타결손	전체
피복비	0.6	1.4	0.0	1.1
식품비	23.7	20.1	20.6	20.9
주거비	22.7	18.0	13.2	18.6
교육비	37.6	41.8	42.6	41.0
의료비	8.8	7.6	11.8	8.1
경조비	5.2	7.8	7.4	7.3
기 타	1.5	3.3	4.4	3.0
(응답수) <sup>1)</sup>	(194)	(701)	(68)	(963)

註: 1)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도 포함된 것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손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자료』, 1994.

家族福祉에서 經濟的 期待가 높은 것은 다른 問題들이 사회적 지원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는 상대적 관점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缺損家族은 自立更生의 意志가 강하며, 되도록이면 사회적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家族만의 힘으로는 自立은 물론 생활안정도 限界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缺損支援은 이들 家族에 대한 要求充足이라는 점에서 보다 基本的 生存與件의 保障과 自立基盤의 造成, 그리고 健全生活의 維持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缺損家族의 福祉要求는 결손가족의 상담결과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經濟的 側面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金貞子 外, 1984).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子女의 養育 및 敎育, 가족생활에서의 情緒問題, 그리고 親族 및 이웃간의 疎外 등은 결손가족만의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偏父母 家族은 젊은 층일수록 再婚을 원하며, 再婚理由는 經濟的 側面보다 외로움, 자녀양육 및 노후생활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손가족이 家族特性 및 個人特性에 따라서 問題가 다르고, 또 福祉要求도 달리하는 斷片的 事例가 아닐 수 없다.

福祉要求는 특정 時期나 狀況에서만 생각할 수 없고, 生活週期 變化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일부 人口統計에서도 類推될 수 있다(表 8 참조). 1960년 15~64세 人口가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人口를 扶養해야 하는 扶養比가

각각 77.3과 5.3으로 子女扶養(94%)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1990년의 年少扶養比는 37.3, 老人扶養比는 7.2를 나타내고, 2020년경에는 年少扶養比가 22.4, 老人扶養比가 18.4로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家族扶養은 대부분이 子女扶養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老人扶養에 比重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1.6 수준의 合計出産率을 유지하고, 平均壽命은 70세를 상회할 것이라는 데 緣由한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층일수록 結婚을 앓거나, 子女를 두지 않으려 하고, 또는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家族扶養이 長男 내지 아들 爲主인 扶養體제도 修正될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할 수 있다.

家族扶養은 父母子息間의 相對的比를 떠나서도 個人役割의 多樣化 및 扶養意識의 弱화에서도 문제가 된다. 젊은 층이 教育, 就業 등의 이유로 부모자식간 分居形態가 늘어나고 이러한 形態가 固着化될 때 父母는 子息에게 의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結婚한 부인의 媳父母와의 同居率은 1960년 이전 結婚코호트에서 76 퍼센트였으나 1960~1970년 結婚 코호트는 54%로, 그리고 1980년 이후 結婚 코호트에서는 33%로 감소했다(金敏子 外, 1991). 이러한 점은 외형적 扶養體系의 瓦解를 의미한다. 물론 父母扶養을 부모자식간 同居形態로만 생각할 수도 없다. 최근 60세 이상 노인 중 就業率은 男子가 53%, 女子가 28%로 子女에게 依存하지 않고 獨立된 生活을 하거나 오히려 子女를 保護하는 경우도 적지않다(孔世權 外, 199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福祉要求는 人口構造, 家族形態 및 扶養體系 등 다각적인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表 8> 最近 人口指標의 變化와 展望

인구지표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연소부양비 <sup>1)</sup>	77.3	78.2	54.6	37.3	29.4	28.6	22.4
노인부양비	5.3	5.7	6.1	7.2	9.4	13.1	18.4
노령화지수 <sup>2)</sup>	6.9	7.2	11.2	19.4	32.0	49.1	82.9
합계출산율	6.0	4.5	2.7	1.6	-	-	-
평균수명(세)	55.3	63.2	65.8	71.3	74.3	76.1	77.0

註: 1) 연소부양비는 0~14세, 노인부양비는 65세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노령화지수는  $65^+/0-15 \times 100$ 으로 구함.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총량 부문:인구 분야 계획, 1991.

## 第5節 缺損家族의 變化

가족의 分化 및 解體 등 構造的 缺損이 生活의 自立이 어려운 機能的 缺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配偶者의 死亡, 夫婦間 離婚, 父母子息間 別居 및 자녀의 遺棄 등은 어떠한 狀態에 있을까? 1966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는 偏父母와 子女로 구성되는 가구는 39만에서 1990년에는 89만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되어 전체 家口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편부모 가구의 發生은 配偶者 死亡에 의한 것이 84.1%, 夫婦間 離婚에 의한 것이 6.2%, 配偶者의 遺棄에 의한 것이 6.4%, 그리고 別居에 의한 것이 3.2%로 추정된다(金貞子 外, 1984). 또 父母子息間 別居는 1960년 이전까지 子女가 結婚後 약 1/4만이 別居狀態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약 2/3가 별거형태를 이루고(金敏子 外, 1992), 子女遺棄는 정부가 보호하는 소년/소녀가족만도 1985년에 4천9백세대 였으나 1993년은 7천3백세대로 증가하고 있다(김응석 외, 1994).

이처럼 가족의 分化와 함께 離婚의 증가 및 각종 事故로 인한 死亡은 편부모 가족, 노인 독신가족, 그리고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족의 發生原因이 되고 있다. 여기서 偏父母 家族은 결혼가족의 主軸을 이루며, 오늘날의 새로운 類型이 아니다.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戰爭이나 疾病으로 인한 配偶者의 死亡으로 편부모와 자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편부모 가족은 英國의 경우도 1971~1973년 간 전체가구중 8%에 불과 했으나 1981~1983년 간은 13%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HS Monitor 84/1, 안병철, 1992).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産業化 이전까지만 해도 戰爭이나 疾病에 의한 配偶者 死亡이 偏父母 家族의 發生원인이었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각종 事故나, 離婚, 遺棄 및 別居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통계청, 1993).

편부모 가족의 또 다른 형태는 未婚出産으로 인한 未婚母 家族의 증가이다. 이러한 미혼모 가족의 發生機轉은 複雜多樣하여 精確한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婚前妊娠의 증가 및 未婚母 상담건수의 증가(金根祚, 1986)에서도 類推할 수 있다. 婚前妊娠 經驗率은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조사에서 既婚婦人 중 20%에 달하며(孔世權 外, 1992), 이러한 임신의 약 1/3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모든 婚前妊娠이 모두 未婚母로 歸結되는 것은 아니다. 婚前 關係가 圓滿한 結婚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出産은 未婚母나

棄兒로 나타나게 됨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未婚母 相談 및 入養兒의 原因에서도 엿볼 수 있다(表 9 참조). 未婚母 相談件數는 1981년 2,882건이 1985년 4,681건으로 증가했고, 또 1960년 초까지만 해도 입양아의 2/3가 기아였으나 최근에는 未婚母에 의한 出産이 4/5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立證한다고 하겠다. 특히 未婚母는 결손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1~1985년간 홀트 아동복지회가 입양상담을 한 未婚母는 부모 중 한쪽 또는 모두 사망했던 가족의 경우가 전체 未婚母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金根祚, 1986).

偏父母 家族의 增加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一般的 趨勢라 하겠다. 偏父母 家族의 증가는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Cockbarn & Hecllo, 1974)에서와 같이 미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은 영국보다 離婚率이 좀 높은 편으로 偏父母 家族의 비율도 높다. 영국은 1981년 16세 이하 兒童의 6%가 偏父母와 같이 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1970년대 말에 18세 미만 兒童 중 19%가 偏父母와 같이 살고 있다. 偏父母 家口의 家口主는 대부분이 女性이며, 이들 가구의 약 2/3는 父母가 離婚을 하였거나 別居를 한 경우이고, 15%는 未婚母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10%는 아버지가 死亡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Levitan and Belous;1981). 이러한 점은 한국의 人口動態申告資料에서도 離婚率의 증가와 함께 離婚 家口主의 비율이 증가(통계청, 1991)하고 있는 점에서 離婚母나 未婚母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表 9> 入養兒의 發生要因別 分布: 1958~1992

(단위: 명)

시 기	연 평 균 입양아수	발 생 요 인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
1958~1960	900	10.7	65.0	24.3
1961~1970	1,148	21.5	60.8	17.8
1971~1980	6,355	42.0	35.0	23.0
1981~1985	10,101	65.4	17.3	17.2
1986~1990	8,246	81.8	6.6	11.6
1991~1992	3,336	82.1	8.2	9.7

資料: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偏父母와 子女로 구성되는 形態가 構造的 缺損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父母가 모두 死亡한 無依託 靑少年 家族, 그리고 老人 獨身 家族도 제외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이를 수록 子女의 必要性에 대한 意識이 弱화되면서, “반드시 자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경우는 15~49세 기혼부인 중 10%에 달하고,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경우는 28%에 이르며, 또 老後에 子女와 別居를 選好하는 경우는 72%에 이르고 있다(孔世權 外, 1992). 子女를 두지 않거나, 子女가 結婚後 부모와 別居하는 形態는 서로의 便宜性(83%)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形態가 固着될 경우 부모의 노후는 또 다른 缺損家族으로 남게 될 危險性을 배제할 수 없다.

個人役割의 다양화 및 個人意識의 보편화에서 가족이라는 묶음은 夫婦間 또는 父母子息間이 死亡이나 別居로 헤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 生活의 自立이 어렵게 된다면 家族缺損은 社會的 要因이나 家族的 要因의 複合産物일 수 있다. 특히 出産力의 저하와 死亡構造의 변화, 그리고 平均壽命의 延長에 따른 家族生活週期(family life cycle)의 변화에서 이러한 양상은 보다 심화될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그것은 役割의 專門化, 離婚의 增加 및 分居의 普遍化에서 家族間 同居는 어렵고, 극도의 個人主義 및 便宜主義는 子女遺棄 및 家庭破壞로 缺損家族을 증가시키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가족은 그 자체로만 남지 않는다. 偏父母 家族은 再婚이 이루어지고, 靑少年 家族은 成長과 함께 새로운 家族을 이루며, 老人家族은 解體된다.

최근 調査(孔世權 外, 1992)에서 離婚婦人의 再婚率은 41%에 이른다. 再婚時 平均年齡은 부인이 29.6세이고, 남편이 36.4세이다. 離婚婦人의 再婚率은 농촌지역이 76.2%인데 비해서 도시지역은 33.7%이며,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나 적을 수록, 그리고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에 높다(徐文姬, 1993). 그러나 離婚男子의 再婚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人口센서스에서 35~39세 男性의 연령별 有配偶率이 95%에 이르고 있음은 離婚男子의 再婚率이 離婚婦人의 再婚率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쉽게 類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離婚男性의 6명 중 5명이, 그리고 離婚女性의 4명중 1명이 재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혼은 이혼 후 3년내에 1/2이 이루어진다(Cherlin, 1981).

이처럼 산업화와 함께 結婚의 自律化와 分居의 普遍化(주거이동의 증가), 그리

고 각종 事故의 增加 등은 가족이 일정한 形態로만 維持될 수 없고, 多樣的 形態의 出現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형적 形態만을 기준으로 하여 缺損家族으로 烙印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受容하는 認識의 轉換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가족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構造的 側面보다 生活을 自立할 수 있느냐는 機能的 側面이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代案形態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第4章 結論 및 提言

지난 한 世代를 걸쳐서 우리는 貧困問題를 克服하기 위한 經濟開發에 몰두하면서 物質的 豊饒와 生活의 便宜性만을 강조해 왔다. “잘 먹고, 편히 살자”는 物質主義 및 便宜主義는 그 裏面에 이웃을 잃었고, 親族을 멀리했고, 또 家族間 葛藤도 심해졌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個人主義的 價値觀이 統合보다 分裂을, 妥協보다 反目을, 또 信賴보다 不信을 조장하면서 그 결과는 자신들을 孤立化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社會病理의 斷面이라면, 家族缺損은 夫婦間의 解婚으로 自立生活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다.

家族缺損은 가족문제의 궁극적 産物일 수밖에 없다. 缺損家族은 흔히 父子家族, 母子家族, 또는 少年/少女 家族 등 構造的 缺損으로, 또 零細家族은 生活의 自立이 어려운 機能的 缺損으로 지칭하면서 이들 家族을 福祉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缺損家族은 어떤 경우이고, 또 家族福祉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缺損家族을 構造機能的 缺陷으로, 또 家族福祉를 이들 家族의 결함을 매꾸기 위한 努力으로 看做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接木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本 研究는 家族缺損과 福祉問題를 검토하면서, 이제 그 結論을 제시코저 한다.

본 연구는 家族을 社會構成의 基本單位로, 또 하나의 獨立된 生活單位로 전제 한 것이다. 여기서 社會構成의 基本單位란 家族과 社會의 不可分性을 뜻하며, 獨立된 生活單位란 自立에 의한 獨立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獨立性을 위해서는 일정한 構造와 機能, 그리고 價値觀을 필수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缺損家族은 家族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조기능적 必須要件의 缺陷이나, 이들 要件間의 不調和 現象으로 간주된 것이다. 즉 構造的으로 普遍性을 이루지 못했거나, 機能的으로 生活의 自立이 어렵거나, 또는 價値觀의 乖離로 안정성이 문제시되는 등 3次元的 複合概念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本 研究는 家族缺損을 構造機能的 側面에서만 접근했다. 즉 結婚의 解婚與否와 生活의 自立與否에 따른 複合類型이 그것이다. 이러한 概念에 의한

調査結果는 전국적으로 조사완료한 17,275가구 중 構造的 缺損이 8.4%, 機能的 缺損이 12.7%였다. 또 이 두 變數의 交叉結果에서 構造機能的 正常家族은 81.3%, 構造的 缺損이지만 機能的 正常家族은 6.0%, 構造的 正常이지만 機能的 缺損家族은 10.3%, 그리고 構造機能的 缺損家族은 2.4%였다. 여기서 機能的으로 결손인 生活依存家口는 生活自立家口보다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이 낮은 것은 당연시되지만 解婚狀態의 生活依存家口도 19%는 貯蓄을 하고, 12%는 生活에 滿足하며, 또 48%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展望을 하고 있어 要救護對象家口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缺損家族의 生活문제는 대부분 가정경제와 자녀양육 문제로 집약되고 이를 편 부가족, 편모가족 및 기타 결손가족(대개 소년/소녀가족)별로 분류해 볼 때 偏母家族은 비교적 자립력이 강하고, 가족 및 친족관계에 의한 生活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偏父家族은 가족·친족관계의 고립화를 엿볼 수 있다. 또 이들 가족 중 대개 政府支援을 받는 경우는 약 30%를 점유하며, 家族支援은 약 18%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核家族化와 함께 친족간의 유대약화에서 결손가족의 生活보호는 政府지원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까지의 政府事業은 肯定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缺損家族이 문제가 되고 또 生活保護 대상일 수는 없다. 構造的 缺損狀態에서도 풍족한 生活을 누리고, 生活에 만족하는 경우는 이들 가족 중 약 1/4에 달하며, 구조적 결손이 아니더라도 生活을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10%를 상회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缺損福祉의 選別化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이 해혼상태일수록, 또 부모가 모두 없는 소년/소녀 가족일수록 家庭經濟나 子女教育 및 扶養問題가 크며, 이들 가족의 生活費 중 가장 큰 비중은 자녀교육이라는 점에서 만약 결손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義務教育과 教育附帶費를 政府가 지원한다면 결손가족의 家計負擔을 덜어주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家族缺損은 왜 나타나고, 이들은 어떻게 生活하며, 또 무엇이 問題일까? 家族缺損의 原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社會的 要因으로 社會發展과 함께 가족은 이에 適應 또는 對應할 수 있도록 開發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家族은 機能의 專門化, 役割의 多樣化로 構造의 單純化가 촉진되고, 또 각종 事故로 인한 人命損失, 그리고 家庭破壞가 構造機能的 缺損은 물론 價値觀의 乖離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私的인 점으로만 여기면서 對處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家族의 要因으로 家族은 자체의 統制力 및 補完力을 喪失하면서 瓦解 내지 解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즉 個人役割의 多樣化와 出産調節의 普遍化는 共同體意識을 弱화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家族間 役割補完을 어렵게 하면서 家族分化 및 扶養忌避가 扶養體系의 瓦解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結婚의 自律化에서 離婚이 自律化되고, 役割의 分化에서 家族의 分化가 조장되었고, 결과적으로 父母가 子息을 버리고 子息도 父母扶養을 기피하는 惡循環의 고리가 家族缺損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缺損家族에서 중요문제는 構造的 缺損이 機能的 缺損으로 이어진 점이다. 配偶者의 死亡이나 離婚 또는 別居로 役割補完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經濟的 貧困은 물론 情緒的 貧困이 뒤따르고, 이에 附加해서 子女의 養育 및 敎育이라는 짐까지 남겨진 缺損家族은 夫婦關係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政府는 이들 家族을 위한 生計支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受惠者의 側面에서는 最低生計費에도 못미치는 상태에 있고, 供給者의 側面에서는 막대한 資金을 投入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福祉策도 缺損家族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 결국 福祉制度는 家族制度를 보완하기 위한 方便의 手段에 불과하다. 따라서 家族缺損을 위한 最善의 福祉는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豫防이고, 次善의 福祉는 결손가족이 그들만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再活이며, 最終의 福祉는 이들의 安寧을 위한 保護일 수 있다. 물론 福祉理念은 豫防과 再活, 그리고 保護의 의미를 包括하지만 대부분의 福祉策은 豫防에 앞서 再活을, 再活에 앞서서 保護에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福祉의 生理라면 缺損家族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한 投資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缺損家族을 위한 福祉策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家族缺損의 豫防策이다. 缺損豫防은 健全生活 그 자체로 이러한 노력은 광범할 수밖에 없다. 健全生活은 成員間의 協力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물질적 補完關係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必要로 하고, 서로를 위한 關係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關係의 瓦解나 斷絶은 缺損要因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缺損豫防은 먼저 共同體意識 提高를 위한 家族敎育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은 社會的 適應力을 높이기 위한 役割開發이 뒤따라야 하며, 끝으로 問題의 豫防 및 治療를 위한 相談프로그램이 竝行되어야 한다.

둘째는 缺損家族의 再活 및 保護策이다. 缺損家族의 再活 및 保護는 缺損要因 및 缺損結果의 複合性에서 간단치 않다. 다만 缺損類型別 役割支援, 生活實態別 生計保護, 그리고 成員能力別 役割開發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행 家族福祉는 生計保護 및 醫療保護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부가 一方的으로 정한 特定의 福祉메뉴로써 缺損家族을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缺損家族을 위한 福祉는 어떤 점이 缺損되었고, 무엇이 必要하며, 어떻게 하면 再活할 수 있는냐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缺損福祉는 對象別 救護福祉에서 家族中心의 機能福祉로의 轉換이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缺損對象別 生計支援 業務의 統合管理이며, 다음은 缺損實態別 福祉要求 및 再活可能 등을 고려한 다양한 福祉메뉴의 開發이고, 셋째는 一線 家族福祉業務의 有機的 協力體系 構築이다. 여기서 生計支援 業務의 統合管理<sup>4)</sup>는 家族特性을 고려한 支援體系의 單一化(one-line system)를, 福祉메뉴의 開發은 物質的 支援과 아울러 役割支援의 竝行을, 그리고 協力體系 構築은 각종 福祉資源의 統合運營 體制를 의미한다.

4) 여기서 통합관리는 생활보호, 모자보호, 부자보호, 장애보호 및 소년/소녀 가정보호를 위한 생계지원 업무의 통합관리를 뜻함.

## 參考文獻

-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孔世權 外, 『韓國家族의 機能과 役割變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孔世權·曹愛姐·金勝權·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産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孔世權·曹愛姐·金勝權, 『家族의 變化와 家族政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孔世權 外, 「人口의 老齡化와 老人家口의 特性」, 『1991 全國出産力 調査 特別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金敏子·孔世權·曹愛姐, 「結婚한 婦人의 媳父母와의 同居形態」, 『保健社會論集』, 第11卷, 第2號,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
- 金根祚, “未婚母와 社會問題”, 『현대사회와 여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6.
- 김응석·이상현, 「소년/소녀가족의 복지지원 방안」,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金貞子 外, 『偏父母家族의 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4.
- 金貞子 外, 『低所得層 母子家族에 관한 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8.
- 徐文姬, 「婦人의 結婚과 再婚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人口學的 및 結婚 關聯要因」, 『保健社會論集』, 第13卷, 第2號,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안병철·서동인(역),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72.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 1991, 10.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 한남제, 「한국의 산업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Burgess, Ernest W., Locke, Harvey J. and Thomes, Mary M.,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3rd ed., Cincinnati, American Book Co., 1963.

- Cherlin, Andrew,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Cockburn, C. and Hecló, H., *Income Maintenance for One-parent Families in Other Countries*, Appendix 3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One-parent Families, Cmnd 5629, London, HMSO, 1974.
-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 *General Household Survey Monitor, 84/1*, London, HMSO, 1984.
- Haskey, John, "Marital Status Before Marriage and Age at Marriage: Their Influence on the Chance of Divorce", *Population Trends*, 32, 1983.
- Levitan, San A., and Belous, Richards., *What's Happening to the American Famil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Sweet, James A., and Larry L. Bumpass,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0.
- Nye, F. L. and Berardo, F. M.,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1.
- Romanyshyn, J. M., *Social Welfare : Charity to Justice*, New York, Random House, 1971.
- Wolinsky, Fredric D., *The Sociology of Health, Principles, Practitioners, and Issues*,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8.

# 附 錄



조사표번호					
조사구 번호	거 처 번호	조사구내 가구 일련번호	조사대상		
			조사 대상자수	가구내 대상번호	응답자 일련번호
			<input type="checkbox"/> 없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음 명 명	

-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 -  
결손가족의 생활실태 조사

1994

주 소	— 시 — 구 — 동 — 아파트 — 동 — 호 — 통 — 반 — 도 — 시 — 읍 — 리 — 번지 — 호 — 통 — 반 (군) (면)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 문 결 과	검 토 결 과
1	— 월 — 일 — 시 — 분부터 — 시 — 분까지	<input type="checkbox"/> 1. 완 료 <input type="checkbox"/> 4. 응 답 거 절 <input type="checkbox"/> 2. 외 출 <input type="checkbox"/> 5. 이 사 <input type="checkbox"/> 3. 장 기 출 타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_____	<input type="checkbox"/> 1. 양 호 <input type="checkbox"/> 2. 약 간 수 정 <input type="checkbox"/> 3. 재 방 문 지 시
2	— 월 — 일 — 시 — 분부터 — 시 — 분까지	<input type="checkbox"/> 1. 완 료 <input type="checkbox"/> 4. 응 답 거 절 <input type="checkbox"/> 2. 외 출 <input type="checkbox"/> 5. 이 사 <input type="checkbox"/> 3. 장 기 출 타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_____	<input type="checkbox"/> 1. 양 호 <input type="checkbox"/> 2. 약 간 수 정 <input type="checkbox"/> 3. 재 방 문 지 시
3	— 월 — 일 — 시 — 분부터 — 시 — 분까지	<input type="checkbox"/> 1. 완 료 <input type="checkbox"/> 4. 응 답 거 절 <input type="checkbox"/> 2. 외 출 <input type="checkbox"/> 5. 이 사 <input type="checkbox"/> 3. 장 기 출 타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_____	<input type="checkbox"/> 1. 양 호 <input type="checkbox"/> 2. 약 간 수 정 <input type="checkbox"/> 3. 재 방 문 지 시
조사원 성명: _____ 소속: _____ 직위: _____	지도원 성명: _____ 소속: _____ 직위: _____		

보 건 사 회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를 뽑아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유우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가족결손의 예방 및 지원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지역으로 뽑힌 각 동·읍·면의 가정복지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이 귀 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은 정부 가정복지정책 수립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며, 또한 통계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 6.

보 건 사 회 부 장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I. 가구원 및 가족원 사항

\* 현재 택에서 1개월 이상 같이 사는 식구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구분	① 이 름	② 성 별	③가구주와의 관계	④ 연 령	⑤ 생 년 월 일
	현재 택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가구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배우자, 부, 모, 조부, 조모, 배우자의 모, 장남 3녀, 하숙인...)	이분은 현재 몇살이십니까?	이분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같이 사는 식구	01	남 여	가구주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2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3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4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5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6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7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8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09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10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조사원 확인 1>

같이 사는 식구중 ① 친지방문 등으로 잠시 출타한 사람, ② 여행증이거나 입원중인 사람, ③ 친척이나 하숙인 중 빠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사는 식구」(01-10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구분	① 이 름	② 성 별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연 령	⑤ 생 년 월 일
떨어져 사는 식구	21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22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23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24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25	남 여		__세(만__세)	__년__월__일(양·음)



## II. 주거사항

◆ 조사원: 매 질문마다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거나 응답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살고 계신 집은 택의 소유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자기 집   | <input type="checkbox"/> 4. 사택, 관사          |
| <input type="checkbox"/> 2. 전세( <input type="checkbox"/> 독채 <input type="checkbox"/> 방 ) | <input type="checkbox"/> 5. 시택, 친정 및 친척집 등  |
| <input type="checkbox"/> 3. 월세( <input type="checkbox"/> 독채 <input type="checkbox"/> 방 )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어디: _____ ) |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수는 몇개나 됩니까?

사용방수: \_\_\_\_\_ 개

3. 다음중 현재 귀 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용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                                |
|-----------|----------------------------------|--------------------------------|
| 3-1. 전 화  | : <input type="checkbox"/> 0.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 3-2. 텔레비전 | : <input type="checkbox"/> 0.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 3-3. 냉장고  | : <input type="checkbox"/> 0.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 3-4. 세탁기  | : <input type="checkbox"/> 0.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 3-5. 자동차  | : <input type="checkbox"/> 0. 없다 |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4. 귀 택에서 사용중인 난방시설은 무엇입니까?

- |   |
|---|
| <input type="checkbox"/> 1. 재래식 아궁이       |
| <input type="checkbox"/> 2. 연탄            |
| <input type="checkbox"/> 3. 기름, 가스        |
| <input type="checkbox"/> 4. 기타(무엇: _____) |

5. 현재 이 곳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 거주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6. 이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 |   |
|---|
| <input type="checkbox"/> 0. 이사한 적 없음              |
| <input type="checkbox"/> 1. _____ 시·도 _____ 시·구·군 |
|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

6-1. 현재 이 곳으로 이사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신규 주택구입   | <input type="checkbox"/> 5. 자녀양육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2. 주택교환      | <input type="checkbox"/> 6. 주위환경이 나빠서     |
| <input type="checkbox"/> 3. 직장, 취업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7. 기타(무엇: _____) |
| <input type="checkbox"/> 4. 자녀교육때문에   |   |

7. 귀 닥의 월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 및 교육비, 의료비, 공과금, 교통비, 이자등 모두 포함).

월평균 생활비: \_\_\_\_\_ 원

8. 그렇다면 현재 귀 닥에서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해당사항 모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본인 또는 가족이 벌어서
- 2. 부모, 형제, 자녀 등의 도움으로
- 3. 친척의 도움으로
- 4. 정부의 지원으로
- 5. 민간기관, 단체 및 후원자의 지원으로
- 6. 재산소득(집세, 이자등) 또는 위자료로
- 7. 기타(\_\_\_\_\_)

9. 현재의 생활비중 귀 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피복비
- 2. 식품비
- 3. 주거비
- 4. 교육비( 학비  과외비)
- 5. 의료비
- 6. 공과금
- 7. 경조사 부조비
- 8. 기타(무엇:\_\_\_\_\_)

10. 귀 닥에서는 계나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 0. 저축을 못하고 있다
- 1. 저축을 하고 있다

10-1. 저축을 하고 있다면 월평균 저축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평균 저축액: \_\_\_\_\_ 원

11. 귀 닥의 경우 혹시 빚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 0. 빚은 없다
- 1. 빚이 있다

11-1. 빚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채액: \_\_\_\_\_ 원

11-2. 그 빚은 무엇때문에 지게 된 것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피복비
- 2. 식품비
- 3. 주거비
- 4. 자녀교육비
- 5. 의료비
- 6. 사업자금/영농, 영어자금
- 7. 기타(무엇:\_\_\_\_\_)

12. 현재 귀 닥의 가장 큰 문제(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경제적 문제
  - 2. 자녀문제(□교육 □비행 □결혼 □기타)
  - 3. 가족건강문제(□장애 □질병 □허약 □기타)
  - 4. 가족부양(□자녀 □부모 □기타)
  - 5. 가족갈등(□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기타)
  - 6. 기타문제(무엇: \_\_\_\_\_)
13. 현재 귀 닥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 사는 편
  - 2. 잘 사는 편
  - 3. 보통(이웃과 비슷)
  - 4. 못 사는 편
  - 5. 아주 못 사는 편
14. 현재 귀 닥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하는 편이다
  - 3. 그저그렇다
  - 4. 불만족하다
  - 5. 매우 불만족하다
15. 향후 귀 닥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 2. 좋아질 것이다
  - 3. 그저그럴 것이다
  - 4. 나빠질 것이다
  - 5. 매우 나빠질 것이다

### III. 생계활동

◆ 조사원

여기서 부터는 결손가족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즉, I.가구원 및 가족원 사항 ⑫번 조사대상분류에서 1-5번에 해당되는 가구에게만 질문하십시오.

<생활비 충당방법: 질문 II-8에서 확인하여 옮겨 적을 것>

- 1. 본인 또는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 →(질문 1로 가시오)
- 2. 부모, 형제, 자녀 및 친척 등의 도움으로 생활 →(질문 6으로 가시오)
- 3.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 →(질문 12로 가시오)
- 4. 민간기관, 단체 및 후원자의 지원으로 생활 →(질문 17로 가시오)
- 5. 기타 →(질문 22로 가시오)

\* 생활비 충당방법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즉 가족이 별면서 친척의 도움도 받는다면 질문 1-11까지 모두 질문해야 합니다.

가족이 벌어서 생활하는 경우

1. 현재 귀 닥의 가족중 돈을 벌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명입니까?

총수입원: \_\_\_\_\_명

2.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가족중 귀 닥의 생활비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분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책임자가 2명이상일 경우 응답자에게 재확인하여 주책임자 1명에 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 1. 가구주 본인
- 2. 자녀
- 3. 부모
- 4. 형제, 자매
- 5. 기타 가족(누구: \_\_\_\_\_)

3. 그 분이 현재 하시는 일(직업)은 어떤 일입니까?

하는 일: \_\_\_\_\_

3-1. 그 분은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봉급근로자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고용주
- 2. 자영업자
- 3. 임금·봉급근로자 (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기타)

4. 그 분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월평균 수입: \_\_\_\_\_ 원  
 9. 모르겠다
5. 현재 귀 댁에서는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편입니까?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하다  
 3. 충분하지는 않지만 별 지장은 없다  
 4. 부족하다  
 5. 매우 부족하다

부모, 형제, 자녀 및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

6. 현재 어느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 부모  
 2. 형제, 자매  
 3. 자녀  
 4. 친척(가구주와의 관계: \_\_\_\_\_)
7. 그 분들로 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 현물지원( \_\_\_\_\_ )  
 2. 현금지원( \_\_\_\_\_ )  
 3. 기타(무엇: \_\_\_\_\_)
8. 그 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1. 19\_\_년\_\_월부터  
 9. 모르겠다
9. 그 분들의 도움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1. 정기적(년\_\_회)  
 2. 비정기적( 수시로  특별한 때에만)  
 3. 기타(어떻게: \_\_\_\_\_)  
 9. 모르겠다
10. 그 분들의 도움은 월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현물지원의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주십시오).  
 월평균 지원액: \_\_\_\_\_ 원



11. 그 분들의 도움이 귀 닥의 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 1. 크게 보탬이 된다
- 2. 보탬이 되는 편
- 3. 별로 보탬이 안된다
- 4. 전혀 보탬이 안된다
- 9. 모르겠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12. 귀 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보호대상중 어떤 대상으로 선정되신 것입니까? 보호대상: \_\_\_\_\_

13. 그렇다면 정부로 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지원받고 있는 내용 모두를 말씀해주십시오.

13-1.  현금/현물지원

- 1. 생계비(월평균 지원비: \_\_\_\_\_ 원)
- 2. 아동교육비(월평균지원비: \_\_\_\_\_ 원)
- 3. 직업훈련비( \_\_\_\_\_ 원)
- 4. 아동양육비(월평균지원비: \_\_\_\_\_ 원)
- 5. 복지자금 대여( \_\_\_\_\_ 원)
- 6. 기타( \_\_\_\_\_ )

13-2.  기타 지원

- 1. 상담지원
- 2. 자원봉사자 지원
- 3. 사회복지시설 이용
- 4. 취업알선
- 5. 임대주택 입주우선권
- 6. 기타(무엇: \_\_\_\_\_ )

14. 귀 닥이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선정년월: \_\_\_\_\_년 \_\_\_\_\_월 부터

15. 이상과 같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 1. 정기적(년 \_\_\_\_\_회)
- 2. 비정기적( 수시로  특별한 때에만)
- 3. 기타( \_\_\_\_\_ )
- 9. 모르겠다

16. 이상과 같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귀 닥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 1. 크게 보탬이 된다
- 2. 보탬이 되는 편
- 3. 별로 보탬이 안된다
- 4. 전혀 보탬이 안된다
- 9. 모르겠다

16-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추가로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추가 지원사항: \_\_\_\_\_

민간기관, 단체 및 후원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

1. 민간기관, 단체

2. 후원자

17. 귀 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는 어느 곳입니까?

1. 민간기관 또는 단체명: \_\_\_\_\_

9. 모르겠다

18. 민간기관이나 단체 또는 후원자로 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1. 현금지원: \_\_\_\_\_

2. 현물지원: \_\_\_\_\_

3. 기타지원: \_\_\_\_\_

19. 민간기관이나 단체 또는 후원자로 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1. 19\_\_년\_\_월부터

9. 모르겠다

20. 민간기관이나 단체 또는 후원자로 부터의 지원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1. 정기적(년\_\_회)

2. 비정기적( 수시로  특별한 때에만)

3. 기타(어떻게: \_\_\_\_\_)

9. 모르겠다

21. 민간기관이나 단체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귀 책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1. 크게 보탬이 된다

2. 보탬이 되는 편

3. 별로 보탬이 안된다

4. 전혀 보탬이 안된다

9. 모르겠다

정부의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III. 생활비 충당방법에서 1, 2, 4, 5에 표시된 경우)

22. 귀 닥은 전에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 0. 선정된 적 없음 → (질문 23으로 가시오)
- 1. 선정된 적 있음

22-1. 그렇다면 어떤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1. 보호대상: \_\_\_\_\_
- 9. 모르겠다

22-2.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탈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탈락된 이유: \_\_\_\_\_
- 9. 모르겠다

22-3.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다시 선정되기를 원하십니까?

- 0. 원치 않는다 →(질문 22-5로 가시오)
- 1. 원한다

22-4. 원한다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생계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6. 가사노동 지원           |
| <input type="checkbox"/> 2. 자녀양육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7. 의료혜택              |
| <input type="checkbox"/> 3. 자녀교육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8. 상담실시              |
| <input type="checkbox"/> 4. 자녀양육, 보호(탁아시설 이용) | <input type="checkbox"/> 9. 저리 대부(생활자금, 주택자금) |
| <input type="checkbox"/> 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input type="checkbox"/> 10. 기타(무엇: _____)    |

22-5. 원치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도움이 필요없어서     | <input type="checkbox"/> 4. 정부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창피해서 |
| <input type="checkbox"/> 2.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 | <input type="checkbox"/> 5. 기타(무엇: _____)       |
| <input type="checkbox"/> 3. 신청절차 등이 복잡해서  |   |

23.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없다면 보호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 0. 신청한 적 없음 →(질문 24로 가시오)
- 1. 신청한 적 있음

23-1. 신청한 적은 있으나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선정되지 못한 이유: \_\_\_\_\_
- 9. 모르겠다

24. 정부의 보호대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도움이 필요없어서
- 2.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 3. 도움을 주는 줄 몰라서
- 4. 신청방법을 몰라서
- 5. 자격기준 미달/초과
- 6. 신청시기를 놓쳐서
- 7. 기타(무엇: \_\_\_\_\_)

24-1. 그렇다면 귀 닥은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선정되기를 원하십니까?

- 0. 원치 않는다
- 1. 원한다(질문 24-2로 가시오)

24-2. 원한다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생계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6. 가사노동 지원           |
| <input type="checkbox"/> 2. 자녀양육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7. 의료혜택              |
| <input type="checkbox"/> 3. 자녀교육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8. 상담실시              |
| <input type="checkbox"/> 4. 자녀양육, 보호(탁아시설 이용) | <input type="checkbox"/> 9. 저리 대부(생활자금, 주택자금) |
| <input type="checkbox"/> 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input type="checkbox"/> 10. 기타(무엇: _____)    |

### IV. 가족관계 및 결혼의 원인

◆ 조사원

이제부터는 결혼가족을 편부모 및 미혼부모가족과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만20세 미만의 아이와 같이 사는 가족으로 나누어 질문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응답자에 맞게 호칭을 바꾸어 질문하십시오.

1. 편부모 가족 및 미혼부모 가족 →(질문 1로 가시오)
2.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비동거중인 만20세 미만의 아이와 같이 사는 가족 →(질문 30으로 가시오)

\* 이제부터는 귀하의 결혼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여쭙워 보겠습니다.

편부모 및 미혼부모 가족의 경우

1. 귀하께서는 돌아가신(또는 헤어지신) 분(배우자)과는 몇 살때 결혼하셨습니다?  
 그 때 배우자되시는 분은 몇 살이셨습니까?  
 1. 본 인: \_\_\_\_\_세(만 \_\_\_\_\_세)  
 2. 배우자: \_\_\_\_\_세(만 \_\_\_\_\_세)
2. 그러면 결혼하신 것은 몇년 몇월이었습니까?  
 결혼년도: 19\_\_\_\_년\_\_\_\_월 (  양력  음력)
3. 결혼신고는 하셨습니까?  
 0. 신고 안했다  
 1. 신고했다
4. 두분께서는 증매로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연애로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1. 증매 또는 소개  
 2. 연애  
 3. 증매 또는 소개후 연애  
 4. 기타(어떻게: \_\_\_\_\_)

5. 두분의 결혼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가구원 및 가족원 사항 참조)

- 1. 사별
- 2. 이혼
- 3. 별거
- 4. 가출(유기)
- 5. 기타(어떻게: \_\_\_\_\_)

6. 두분께서 헤어질 당시 두분은 각각 몇살이었습니까?

- 1. 본 인: \_\_\_\_\_세(만 \_\_\_\_\_세)
- 2. 배우자: \_\_\_\_\_세(만 \_\_\_\_\_세)

7. 두분이 헤어진 것은 몇년 몇월이었습니까?

헤어진 년도: 19\_\_년\_\_월( 양력  음력)

8. 그렇다면 두분께서 헤어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8-1.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8-2. 배우자와 이혼, 별거 또는 가출한 경우



- 1. 병사(질병명: \_\_\_\_\_)
- 2. 사고사( 교통사고  
 산업사고  
 기타사고)
- 3. 자살
- 4. 전사
- 5. 원인불명
- 6. 기타(무엇: \_\_\_\_\_)

- 1. 배우자의 부정
- 2. 학대 또는 폭력
- 3. 성격차이
- 4.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 5. 가족간 불화
- 6. 경제적 문제
- 7. 부모의 반대
- 8. 기타(무엇: \_\_\_\_\_)

\* 다음은 돌아가셨거나 헤어지신 배우자에 관하여 몇가지 여쭙워 보겠습니다.

9. 돌아가셨거나 헤어지신 배우자께서는 현재 몇 세 되셨습니까? 또한 그 분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1. 연령: \_\_\_\_\_세(만 \_\_\_\_\_세)
- 2. 생년월일: 19\_\_년\_\_월\_\_일( 양력  음력)

10. 그 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0. 무학
- 1. 국민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전문대학
- 5. 대학교 이상
- 6. 기타(어디: \_\_\_\_\_)
- 9. 모르겠다

11. 결혼(동거)이후 헤어질 때까지 배우자께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였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1. 한 일: \_\_\_\_\_
- 9. 모르겠다

11-1. 그 분은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봉급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중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 1. 고용주
- 2. 자영업자
- 3. 임금·봉급근로자(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기타)
- 4. 무급가족종사자

12. 그 분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 0. 없음
- 1. 불교
- 2. 개신교
- 3. 가톨릭
- 4. 유교
- 5. 기타(무엇: \_\_\_\_\_)
- 9. 모르겠다

\* 다음은 자녀에 관련된 사항 및 역할담당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과 헤어진 후 현재까지의 상태를 각각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 내용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	헤어진 후 현재까지
13. 귀하께서는 헤어진 배우자와의 사이에 모두 몇남매를 두셨습니까? 결혼으로 분가하였거나 미혼으로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모두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0.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1. 총자녀수: _____명 (남: _____명, 여: _____명)	<input type="checkbox"/> 1. 총자녀수: _____명 (남: _____명, _____명)
14. 배우자와 헤어질 당시 딸이와 막내의 연령은 각각 몇살이었습니까? 또한 현재 그들은 각각 몇살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딸이: _____세(만 _____세) <input type="checkbox"/> 2. 막내: _____세(만 _____세)	<input type="checkbox"/> 1. 딸이: _____세(만 _____세) <input type="checkbox"/> 2. 막내: _____세(만 _____세)
15. 총자녀중 만20세미만의 자녀는 몇명이었습니까? 몇명입니까?	<input type="checkbox"/> 0.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1. 만20세미만 : _____명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만20세미만: _____명

질문 내용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	헤어진 후 현재까지
16. 총자녀중 취학중인 자녀는 몇명이었으며, 그들은 어느 학교에 다녔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0. 취학자녀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1. 취학자녀: _____명 1) 국민학교(____명) 2) 중학교 (____명) 3) 고등학교(____명) 4) 전문대학(____명) 5) 대학교이상(____명)	<input type="checkbox"/> 0. 취학자녀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취학자녀: _____명 1) 국민학교(____명) 2) 중학교 (____명) 3) 고등학교(____명) 4) 전문대학(____명) 5) 대학교이상(____명)
17. 총자녀중 취업중인 자녀는 몇명이었습니까?/몇명입니까?	<input type="checkbox"/> 0. 취업자녀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1. 취업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0. 취업자녀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취업자녀: _____명
18.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 취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또 현재 취업중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0. 취업경험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취업경험 있음 ↓ 한 일: _____ _____	<input type="checkbox"/> 0. 비취업중 <input type="checkbox"/> 1. 취업중 ↓ 하는 일: _____ _____
19. 귀하께서 취업할 당시 만 6세미만의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아 주었습니까?/ 돌보니까?	<input type="checkbox"/> 0 만6세미만 자녀 없음 <input type="checkbox"/> 1. 본인(응답자) <input type="checkbox"/> 2.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3. 자녀 <input type="checkbox"/> 4. 부모 <input type="checkbox"/> 5.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6. 친척 <input type="checkbox"/> 7 기타(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0. 만6세미만 자녀 없음 <input type="checkbox"/> 1. 본인(응답자) <input type="checkbox"/> 2. 자녀 <input type="checkbox"/> 3. 부모 <input type="checkbox"/> 4.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5. 친척 <input type="checkbox"/> 6. 이웃 <input type="checkbox"/> 7 기타(누구: _____)
20. 귀하께서 이들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0. 어려움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1. 양육문제 <input type="checkbox"/> 2. 교육문제 <input type="checkbox"/> 3.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4. 성격문제 <input type="checkbox"/> 5.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0. 어려움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양육문제 <input type="checkbox"/> 2. 교육문제 <input type="checkbox"/> 3. 건강문제 <input type="checkbox"/> 4. 성격문제 <input type="checkbox"/> 5. 기타(무엇: _____)
21. 귀댁의 집안일은 주로 누가 맡아서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2.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3. 부부공동 <input type="checkbox"/> 4. 자녀 <input type="checkbox"/> 5. 부모 <input type="checkbox"/> 6. 친척(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7. 기타(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2. 자녀 <input type="checkbox"/> 3. 부모 <input type="checkbox"/> 4.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5. 친척(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6. 기타(누구: _____)



질문내용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	헤어진 후 현재까지
22. 귀댁의 자녀양육은 주로 누가 하셨습니까?/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3. 부부공동 <input type="checkbox"/> 4. 자녀 <input type="checkbox"/> 5. 부모 <input type="checkbox"/> 6. 친척(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3. 부모 <input type="checkbox"/> 4.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5. 친척(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6. 기타(누구: _____)
23. 귀댁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주로 누가 담당하였습니까?/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2.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3. 부부공동 <input type="checkbox"/> 4. 자녀 <input type="checkbox"/> 5. 부모 <input type="checkbox"/> 6. 친척(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7. 기타(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2. 자녀 <input type="checkbox"/> 3. 부모 <input type="checkbox"/> 4.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5. 친척(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6. 기타(누구: _____)

24.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0. 문제 없었음
- 1. 경제적 문제
- 2. 자녀양육 문제
- 3. 건강문제(본인 및 가족)
- 4. 가사일 문제
- 5. 대외활동
- 6. 대인관계
- 7. 기타(무엇: \_\_\_\_\_)

25. 그러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 1. 본인 스스로
- 2. 자녀
- 3. 부모
- 4. 형제, 자매
- 5. 친척(누구: \_\_\_\_\_)
- 6. 친구, 이웃
- 7. 기타(누구: \_\_\_\_\_)

26. 최근에는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한 경우라도 재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귀하께서는 사별을 하였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재혼하는 것이 좋다
  - 9. 모르겠다

27. 귀하의 경우에는 앞으로 재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0. 재혼할 생각없다

27-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문제
- 2. 가족의 반대
- 3.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 4. 건강상 이유로
- 5. 기타(무엇: \_\_\_\_\_)

1. 재혼할 생각있다

27-2. 그렇다면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문제
- 2. 가족의 반대
- 3.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 4. 건강상 이유로
- 5. 기타(무엇: \_\_\_\_\_)

28. 현재 귀 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 2. 가정이 화목한 것
- 3. 자녀가 잘 되는 것
- 4.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
- 5. 기타(무엇: \_\_\_\_\_)

29. 귀하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생각할 때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 1.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 2.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
- 3. 좋은 사람과 해로하는 것
- 4. 가정이 화목한 것
- 5. 자녀가 잘 되는 것
- 6. 건강하게 사는 것
- 7. 기타(무엇: \_\_\_\_\_)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만20세 미만의 아이와 같이 사는 가족

◆ 조사원

조사대상: 1. 편조부모가 친손자녀나 외손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2. 기타 친족(부계 또는 모계친족 등)이 부모가 없는 친족의 아이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조사대상임. 단, 취학이나 취업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질문방법: 1. 가구원 및 가족원 사항에서 해당되는 아이의 이름을 확인하여 매 질문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 질문한다.  
 2. 만20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이상일 경우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 위주로 질문함.

\* 만20세 미만의 부모없는 아이 이름: \_\_\_\_\_ \*\* 아이와의 관계: \_\_\_\_\_

\* 덕의 가구원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에 대하여 여쭙워 보겠습니다.

30. 귀 덕에서는 xxx가 몇 살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였습니까?  
 동거시작 연령: \_\_\_\_\_세(만\_\_\_\_세)
31. 그렇다면 xxx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사셨습니까?  
 같이 산 기간: \_\_\_\_\_년\_\_\_\_개월
32. xxx와 같이 살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한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아이가 원하여  
 2. 부 또는 모의 부탁으로                       4. 기타(\_\_\_\_\_)
33. 현재 xxx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0. 특별히 하는 일 없다  
 1. 집에서 하는 일을 돕는다  
 2. 학교에만 다닌다  
 3. 학교에 다니며 취업중이다  
 4. 취업만 하고 있다  
 5. 기타(무엇: \_\_\_\_\_)

33-1. 취업중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 \_\_\_\_\_

33-2.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봉급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중 어디에 속합니까?  
 1. 고용주  
 2. 자영업자  
 3. 임금·봉급근로자(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기타)  
 4. 무급가족종사자

34. 이제까지 이 xxx와 같이 사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0. 별 문제 없었음                       4. 취직문제  
 1. 양육문제                               5. 건강문제  
 2. 교육문제                               6. 경제적 문제  
 3. 행동문제                               7. 기타(무엇: \_\_\_\_\_)

35.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1. 본인 스스로                       5. 친척(누구: \_\_\_\_\_)  
 2. 자녀                                   6. 친구, 이웃  
 3. 부모                                   7. 기타(누구: \_\_\_\_\_)  
 4. 형제, 자매

36. 귀 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xxx와 함께 살 계획이십니까?

0. 함께 살지 않겠다                       1. 함께 살겠다

36-1. 함께 살지 않겠다면 언제까지만 함께 살 계획입니까?

1. 학교를 마칠 때까지                       3. 결혼할 때까지  
 2. 취직할 때까지                               4. 기타(언제까지: \_\_\_\_\_)

**\* 이제부터는 xxx의 부모의 결혼에 관한 사항을 여쭙워 보겠습니다.**

37. 혹시 귀하께서는 xxx의 부모들이 결혼한 것은 각각 몇 살때이었는지 아십니까?

1. 아버지: \_\_\_세(만\_\_\_세)                       9. 모르겠다 .  
 2. 어머니: \_\_\_세(만\_\_\_세)                       9. 모르겠다

38. xxx의 부모가 결혼한 때는 몇년 몇월이었습니까?

1. 19\_\_년\_\_월(□ 양력 □ 음력)  
 9. 모르겠다

39. xxx의 부모들은 결혼신고를 하였습니까?

0. 신고하지 않았다  
 1. 신고했다  
 9.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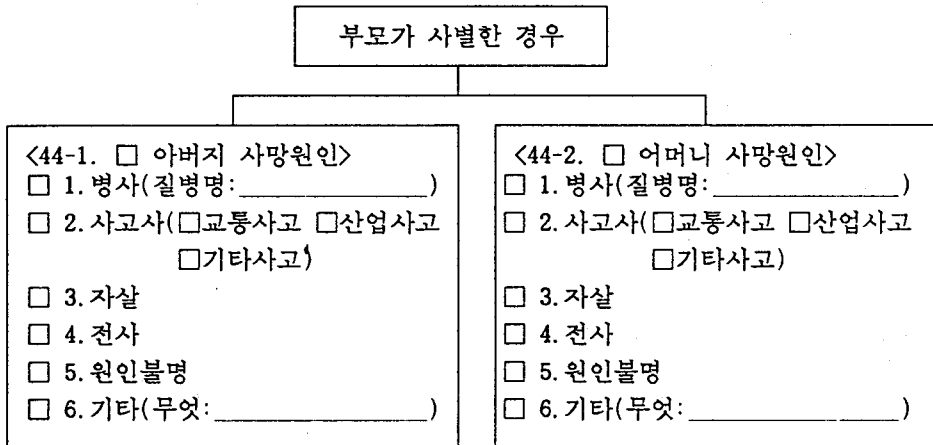
40. xxx의 부모들은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연애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1. 중매                                       4. 기타(어떻게: \_\_\_\_\_)  
 2. 연애                                       9. 모르겠다  
 3. 중매후 연애

41. xxx 부모의 결혼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1. 사별  4. 가출(유기)  
 2. 이혼  5. 기타(어떻게: \_\_\_\_\_)  
 3. 별거  9. 모르겠다
42. xxx의 부모가 헤어질 당시 두분은 각각 몇살이었습니까?  
 1. 아버지: \_\_\_세(만\_\_\_세)  9. 모르겠다  
 2. 어머니: \_\_\_세(만\_\_\_세)  9. 모르겠다
43. xxx의 부모가 헤어진 것은 몇년 몇월이었습니까?  
 1. 19\_\_년\_\_월( 양력  음력)  
 9. 모르겠다
44. 그렇다면 xxx의 부모가 헤어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조사원

xxx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망원인 모두를 질문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두분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해당되는 한 분만 사망원인을 질문할 것.



↓

부모가 이혼, 별거 또는 가출한 경우

- |  |  |
|--|--|
| <p>44-3. <input type="checkbox"/> 1. 배우자의 부정<br/> <input type="checkbox"/> 2. 학대 또는 폭력<br/> <input type="checkbox"/> 3. 성격차이<br/> <input type="checkbox"/> 4. 가족부양의무 불이행</p> | <p><input type="checkbox"/> 5. 가족간 불화<br/> <input type="checkbox"/> 6. 경제적 문제<br/> <input type="checkbox"/> 7. 기타(무엇: _____)</p> |
|--|--|

\* 다음은 xxx의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 및 현 상태에 관하여 여쭙워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	아버지	어머니
45. xxx의 부모는 금년에 몇세나 되셨습니까? 또한 그 분들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 연령: ____세(만 ____세) 2. 생년월일: 19__년 __월 __일	1. 연령: ____세(만 ____세) 2. 생년월일: 19__년 __월 __일
46. xxx의 부모님들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0. 무학 <input type="checkbox"/> 1.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4. 전문대학 <input type="checkbox"/> 5. 대학교 이상 <input type="checkbox"/> 6.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0. 무학 <input type="checkbox"/> 1.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4. 전문대학 <input type="checkbox"/> 5. 대학교 이상 <input type="checkbox"/> 6. 기타(____)
47. xxx의 부모님들은 결혼이후 헤어질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1. 한 일: _____ _____ _____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한 일: _____ _____ _____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47-1. xxx의 부모님들은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봉급자, 무급가족 종사자중 어디에 속하엿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2.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3. 임금·봉급근로자 ( <input type="checkbox"/> 상용직 <input type="checkbox"/>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4.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5.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1.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2.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3. 임금·봉급근로자 ( <input type="checkbox"/> 상용직 <input type="checkbox"/>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4.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5. 기타(무엇: _____)
48. xxx의 부모님들의 종교는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불교 <input type="checkbox"/> 2.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3. 가톨릭 <input type="checkbox"/> 4. 유교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불교 <input type="checkbox"/> 2.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3. 가톨릭 <input type="checkbox"/> 4. 유교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

질문 내용	아버지	어머니
49. xxx의 부모는 현재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생존 <input type="checkbox"/> 2. 사망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생존 <input type="checkbox"/> 2. 사망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49-1. 살아계시다면 xxx와는 왜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떨어져 사는 이유: _____ _____ _____	떨어져 사는 이유: _____ _____ _____
49-2. 헤어진 부모님과 xxx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또는 만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0. 전혀 연락안됨 <input type="checkbox"/> 1. 연락은 하나 만나지는 못함 <input type="checkbox"/> 2. 가끔 만난다 <input type="checkbox"/> 3. 자주 만난다	<input type="checkbox"/> 0. 전혀 연락안됨 <input type="checkbox"/> 1. 연락은 하나 만나지는 못함 <input type="checkbox"/> 2. 가끔 만난다 <input type="checkbox"/> 3. 자주 만난다
50. xxx의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재혼을 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0. 재혼 안했다 <input type="checkbox"/> 1. 재혼 했다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0. 재혼 안했다 <input type="checkbox"/> 1. 재혼 했다 <input type="checkbox"/> 9. 모르겠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政策研究資料 94-05

---

缺損家族의 類型別 福祉需要에 관한 研究

---

1994年 12月 日 印刷

값: 2,000원

1994年 12月 日 發行

著 者 孔 世 權 外

發行人 延 河 清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355-8003~7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아진인쇄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 著 者 略 歷 〉

孔 世 權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獸醫學科 卒業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保健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委員

曹 愛 姐

淑明女子大學校 文科大學 佛文學科 卒業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